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내가 믿나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왔으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버지는 곧바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은 원문에 ‘당신이 무엇이라도 해주실 수 있거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23절로서, 헬라어 본문은 “당신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입니다. 즉 “너는 지금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물어보지만 이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24절). 이 말은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혹 부족하면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무당에게 가서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 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딤후**



📖 텍스트와 콘텍스트

내 발을 바꾸시든지, 내 길을 바꾸시든지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고백한 시입니다. 그는 시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인생길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에 관한 표현들을 보면 참 절박합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목이 탁 매달리는 교수형의 줄같이 공포스러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와 같이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고난, 죽은 자들의 땅으로 잡아 끌어 내리는 듯한 시험·절망·무기력인 ‘스울의 줄’, 한 번만 내디디면 폭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사망의 울무’입니다. 자기의 삶에 이런 역경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뢰다’라는 것은 탄식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탄식하며, 강렬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고난을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적과 훈련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들어서라도 성도를 구원하십니다(7-15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연과 피조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뒤흔들어서 일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에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해를 멈추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천둥과 번개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의 손에서 도망다닐 때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적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도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첫 번째보다 더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셔서 원수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은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30, 32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그것이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도우실 때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인생을 띠 띠우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띠 띠우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옷 모양을 아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의 옷은 커튼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천의 뒤의 장을 안으로, 앞의 장을 밖으로 해서 띠로 딱 묶어야 합니다. 묶지 않으면 펼쳐여서 걷지도 못합니다. ‘띠 띠우다’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번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묶습니다. “이 길로 가라”고 힘이 되어 줍니다. 다윗이 자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했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힘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아뢰고 부르짖을 때
해결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질서를 뒤흔들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기적’과
성도를 ‘훈련’시켜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보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띠 띠우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심

내 발을 바꾸셔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거나
내 길을 바꾸셔서
큰길로 인도하심 ”

발 또는 걸음

이어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켰던 내용을 33절과 36절에 설명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내 걸음을 넓게 하였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33, 36절).

이스라엘 광야에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있고 그 민둥산 사이를 양들이 다니는데, 양 한 마리 정도 걸을 수 있는 폭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쭉 타고 산에 올라가면, 다음 능선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곳에 또 다른 초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다가 양들이 까딱하다가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한발만 잘못 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주의해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였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시 18:30-42)

33절에서 ‘암사슴’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양’입니다. 산을 타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절벽도 오릅니다. 그리고 절벽을 훑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비결은 그들의 발바닥에 있습니다. 산양의 발바닥은 돌로 갈라져 있고 갈라진 틈이 넓어서 지형의 조건에 따라 이 갈라진 발바닥을 조절하면서 땅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암사슴(산양) 발 같게 하셨다고 합니다.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발을 바꾸셔서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절을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넓게 하였고’는 ‘라하브’라고 하는 동사로서, 좁은 길이 넓어지고 앞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좁았던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확 넓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발을 바꾸시든지, 내 길을 바꾸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십니다. 먼저, 나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발을 바꾸십니다. 나는 그 산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인데 내 발을 산양의 발처럼 최적화시켜서 저벽저벽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바꾸십니다. 시온에 대로를 내시는 것처럼 그 광야에 큰 길을 내사 하나님의 백성을 절벽이 아닌 대로로 인도하십니다. 내 능력을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길을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끝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맺음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야 할 대적과 담이 있다면 그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의 띠를 띠고 온전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들어서라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셔서 그 고난 한 고비 한 고비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뛰게 하십니다. 그 높은 담도 내가 뛰어넘으리라 결단하고 한 번만 점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우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띠가 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

새가족환영축제 후기

새가족의 마음을 활짝 여는 새가족환영축제



노경훈 새가족위원장
ceorkh@gmail.com



새가족환영축제가 지난 9월 1일(주일) 새가족실에서 열렸다. 5주간의 새가족교육을 모두 마친 성도들을 축하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새가족들은 “교회의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마음이 열렸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교회에 새로 온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교회 공동체 정착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새가족위원회가 준비한 이번 축제는 새가족들이 열린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따스한 환대자 새가족위원회

열린교회의 새가족위원회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거나 등록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가족위원회 섬김자들은 새가족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섬긴다. 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새가족반 교육 등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과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을 이어간다.

웃음과 기쁨이 충만했던 새가족환영축제

이번 새가족환영축제는 새가족들이 열린교회 공동체에 쉽게 적응하고, 서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따스한 사랑으로 녹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열린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전달하고, 새가족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사일로 부터 한 달 전에 이미 기획했다.

새가족위원회 섬김자들은 각자의 달란트와 맡겨진 역할에 따라,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과 찬양, 행사 진행 리허설 등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해주었다. 환영축제는 밝은 찬양과 함께 시작되었고, 교회 소개 및 당회원과 교역자 소개, 담임목사님의 교회 비전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바이올린과 플루트, 해금의 트리오 연주를 통해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고, 넌센스 퀴즈와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통해 참여한 모두가 하나 되어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환영축제의 하이라이트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새가족들이 열린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짧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저마다 여러 사연과 아픔을 간직한 채 우리 교회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그 중 한 분이 “예배 말씀이 선명하게 성경의 구조와 의미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깨닫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하였듯

새가족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대한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가 필수적이다. 그들에게 교회는 낯설고 어딘가 어색해 보일 때가 많다. 이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들의 신앙 여정에 함께 동행해주는 따스한 친구가 되어 주길 소망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하였듯,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새가족



▶▶ 장년

성기림(88) 성주한(86)
이시영(94) 유신애(88)
김영미(57) 권혜수(70)
정선희(72) 김혜정(74)

▶▶ 청년

김예찬(01)
허성찬(90)
안주영(95)

교회 소식



주바라봄 성경읽기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도가 함께 신약성경을 통독하는 ‘주바라봄 성경읽기’가 진행중입니다. 홈페이지의 ‘주 바라봄 성경읽기’를 클릭하면 해당일의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독자에게는 내년 1월 5일과 12일(주일)에 완독 도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같은 기간 교회학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성경읽기에 특별히 집중하기 위해서 10월 ‘추천도서’ 칼럼은 쉽니다)

가을말씀사경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일정: 10월 7일(월)~11일(금), 14일(월) 오전 5시 30분
-장소: 본관3층 예배실
(*가을말씀사경회에 관한 내용은 8면 참조)

교회학교 가을말씀사경회

-주제
• 미취학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 취학부: “예배: 삶에서 감동을 누리요!”
• 사랑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일시: 10월 15일(화)~1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각 부서실

종직자 기도회

-일시: 10월 12일(토) 오전 6시
-장소: 본관1층 예배실
-대상: 교역자, 센터장, 시무장로, 협동장로, 은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협동권사, 은퇴권사

사임 교역자

-박재현 목사(장년3교구 담당)
이지연 전도사(유년부 담당)
-사임일자: 9월 30일(월)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

-교육: 10월 5일(토)~10월 19일(토)
-문답: 10월 26일(토), 11월 2일(토)
-예식: 11월 10일(주일) 2부, 3부 예배

대아부예비맘스쿨

-일시: 9월 28일(토)~10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육실3(별관2층)

새공과소개/<임재! 그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거니심’을 누리게 되길

이 책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에덴동산에서부터 천국까지 연결하여 살펴 보면서 임재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함께하시고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니심이 있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간이 살아가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파괴는 인간의 죄악 이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략한 이해는 이후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관점을 제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임재의 은혜를 갈망하는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거니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자서문 중에서)



이단대책세미나 취재

외부 성경공부와 노방 설문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들어가는 말

9월 1일(주일) 오후 4시에 이단대책세미나가 있었다. 신천지 활동이 확산되어 여러 교회에 피해가 만연하던 2016년 5월에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신현욱 목사님(구리이단 상담소장, 초대교회 담임)이, 신천지 쇠퇴에 따라 무거운 짐을 덜어서인지 한결 밝고 여유있는 모습으로 다시 강사님으로 오셨다. 선한 싸움의 길을 친히 걸어온 사람만이 품길 수 있는 영향력과 특유의 화법으로 시종일관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가볍지 않은 주제를 무겁지 않게 진행해 나가셨다. 강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천지의 전환기가 된 코로나

신천지는 1년에 대략 2만 명이 등록하고 만 명이 탈퇴해서 매년 평균 1만 명 이상은 꾸준히 성장해 왔고, 25만 명 이상을 넘어서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가 2019년 말이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분위기가 다운되었다.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고 1천여 개의 비밀 교육 장소들이 공개되면서 모두 폐쇄되었고, 그들의 포교 방법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모든 활동을 중지시켰다가 탈퇴자들이 확산되자 작년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 신천지는 피치를 올리고 있다. 해마다 교주가 제시하는 표어가 있는데 올해는 ‘바벨론 심판의 해’라고 정하였다. ‘바벨론’은 신천지 교회 외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데 이 교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심판이 재연된다고 했다.

그래서 올해 말이 되면 교주의 말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보고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만희 총회장이 나이에 비해 건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예전에 안 하던 실수도 잦아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만희 교주 사후에 신천지의 미래는 자명하다. 신 목사님은 신천지가 연말까지는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측하셨다.

신천지의 이단성

이단이라고 하면 다 교주가 있다고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단은 교주가 없는 이단과 교주가 있는 이단으로 분류된다. 여호와증인, 안식교, 물몬교, 구원파 같은 이단은 교주가 없다. 교주가 있는 이단은 대부분 사교(邪敎) 집단일 가능성이 많은데, 신천지는 교주가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종교는 이단이 아니라 이교다. 이단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과 성령님, 성경도 믿는다. 그런데 신천지는 거기다가 이만희도 믿는다. 우리와 신앙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이단과 정통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이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신천지의 전도전략

①비그리스도인 대상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는 전도 전략을 바꾸어서 비신자들을 대상으로는 오픈 전도를 하고 있다. 대놓고 대범하게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정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선전한다. 10만 수료식, 헌혈 행사, 총회장의 활동에 대한 부풀려지고 조작된 자료들을 가지고 홍보한다. 거짓말, 연기력, 천사같은 인간성을 가장해서 지금도 제일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는 설문지이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노방 설문을 통해서 미혹된다. 노방에서 사정하면서 설문지를 줌 써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 신천지이다.

②그리스도인 대상

신천지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여전히 신분을 감추고 접근하는 ‘모락전도’ 방법을 사용한다. 신천지의 장년여자와 모든 청년은 다 MBTI와 애니어그램 전문가이다. 그래서 상담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다. 성격테스트 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다 수집해서 전도대상자를 미리 완벽하게 파악한다. 그래서 경제적·환경적으로 그 사람에 딱 맞는 사람을 매치시켜서 전도를 하니 타깃이 되면 안 넘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통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은 얘기를 제시한다. 그때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이다. 그들의 ‘호기심 유발멘트’는 대부분 창세기임을 꼭 기억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으면 뇌에 남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절대 성경공부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천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신천지 입문 코스이다. 일주일에 보통 3~4일(짧으면 2~3일), 하루에 2~3시간씩 7개월을 공부해야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대규모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대부분은 신천지이다.) 7개월 공부 후에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가 믿어진다면 각서 쓰고 교적표 작성하고 신천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엄중한 당부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된

사람,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등급 분류’라는 걸 한다. 대부분 너무 순진하고 인간관계에 약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리게 된다. 노방 설문에 응하면 설문에 전화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전화번호를 보고 (좋은 교수님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너무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원래 몇 만원짜리인데 이번에 무료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등의 멘트로) 연락을 한다.

성도들이 신천지에 안 빠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리가 없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외부 성경 공부를 왜 했느냐고 물어보면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우니 교회 밖에서는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이단)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요이 1:10). 강사님은 노방 설문에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거절할 것과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셨다.

인덕원 역 주변에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손쓰려고 하지 말고 바로 교회에 신고하라. 그리고 신천지가 무너지는 날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열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회심하면 큰 일꾼으로 자랄 수 있다. 돌아온 탕자를 맞는 심정으로 품어주시면 좋겠다.

나오는 말

이단에 대한 열린교회와 열린신문의 기본 입장은, 정통 교회의 교리와 다른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른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교리의 잣대에 비추어 거짓 교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어적 입장만 고수하기에는 온갖 거짓말과 갖은 술수를 동원하는 신천지의 전략이 너무 사악해서 2016년에 열린신문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어 성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열린신문 252호).

이번 강의에 의하면, 앞으로 한두 해 후에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도 무너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신천지가 망한다고 해도 신자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들은 뒤이어 등장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의 활동도 기승을 부릴 터인데,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개인이 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토대들을 잘 배우고 기억해서 경건하게 적용하는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가는 것이다.

교회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게 운영되어온 교리교육에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과 함께, 성경에 대한 지적(知的) 호기심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표출되고 수준 있게 가르쳐지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교인들이 성경공부를 위해 외부 기관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현욱 목사님이 ‘포스트 신천지’와 관련해서 열린교회의 역할을 미션으로 주고 가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회적 아젠다로 선택하여 연구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편집부) ☆

온가족여름말씀사경회 후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박중훈 장년1교구
jhi010park@daum.net



제가 감히 믿음의 사람으로 간증문을 이곳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부끄럽게도 48년 가까운 인생 동안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녀야만 하는 곳으로 알았고, 성경말씀은 어려서부터 주로 설교 말씀과 성경 이야기책으로 접하다 보니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며,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2023년에 안양에서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근처의 교회를 찾던 중, 처제의 소개로 열린교회를 알게 되었고, 10월 사경회 때,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제로 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그해 12월 말에 등록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시작한 40일 ‘주바라봄 기도회’는 주님의 붙들림 가운데 살고 싶은 갈망으로 전일 참여하였고,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의 사회생활은 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주변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좋은 차, 골프 등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에 편승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가 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과 세상적 가치관 사이의 고민이 항상 뒤따라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8월에 있었던 사경회에서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3일의 휴가를 내고, 주일 저녁에서 화요일 저녁까지 전 일정을 참석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경회 첫날, 회복의 자리인 미스바로 ‘회귀’(Return)하라는 말씀은 제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사랑의 위로를 받았던 그때를 다시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중국에 홀로 장기 파견되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 피곤함 가운데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내 가슴을 울리셨던 그 시간이 그리웠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오전 강의인 ‘청교도 가정관’은, 교회의 회복은 작은 교회인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오는데,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저절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주셨듯이 남편도 아내와 자녀에게 동일한 사랑과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가정의 모습이라는 말씀은 저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변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당일 저녁 집회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고난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간절함을 갖고, 문제에 대해 사람보다는 먼저 주님께 아뢰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날 오전 강의는 마태복음 1장 1절~16절 말씀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한 자나 죄악 가운데 있던 악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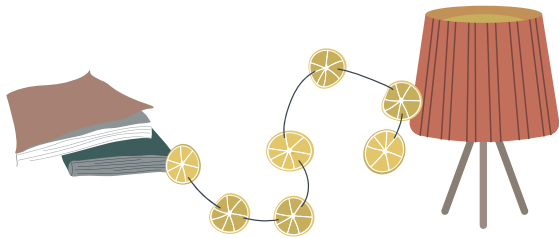
저녁 집회에서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기에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인생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아내와 매일 2~3장이라도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읽었던 구절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면 성경말씀이 더욱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에서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극히 일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경회를 특정지어 한순간에 믿음의 결단이 세워졌다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평생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걸음 한걸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거나 하는 스토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인생 위기의 순간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민 가운데 있지만,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지금의 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강하게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있는 저로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린교회에서 후퇴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경주자(교역자 칼럼)2

하나님의 따뜻하심



권세원 영아부 부사역자
sewon7124@naver.com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은 물리적인 온기를 넘어 ‘포근함’, ‘다정함’, ‘안전함’과 같은 여러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이 좋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음성이 더 합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영혼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홀로 움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함, 그 ‘따뜻하심’이 저의 영혼을 감싸안은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어머니를 따라가던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이 저의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천 날보다 좋으니/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나의 평생에 단 한가지 소원/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하신 임재 속에 머물며 그분의 아름다

우심을 목상할 수 있는 기쁨!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따라 할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자유, 그 안전함...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하게 씌운 약취만 나고 있었던 저의 더러운 영혼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셔서 무감각했던 저의 생명이 발화되게 하심으로,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하신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어린 삶을 통해 주님의 온기를 나누게 하였고, 대학교 시절을 지나 어느덧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열린교회 영아부 부사역자로서 또 다른 나눴의 삶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영아부 아이들을 보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느껴졌던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더욱 낯선 사람이 무섭고, 새로운 환경이 어려울 아이들이지만 선생님 품 안에 안겨서 활짝 웃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뽀뽀 얼얼얼 있었던 저의 차가운 마음이 금세 녹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찌도 이렇게 빨리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또한, 아이들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의 성격과 성향, 외모와 태도가 어떻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따뜻하신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지은 그대로 너는 존귀하다. 내 아들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부모님 품을 떠나 홀로 예배드려야 하는 무서움에 엉엉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을 목상하게 됩니다. “비록, 너의 삶이 내던져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오해일 뿐,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영아부 예배를 마친 후 다시 찾아온 부모님의 품 안에 꼬옥 안겨있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인생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볼 때, 그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따뜻하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8-9). ☆

선교편지/열린열방선교교회에서 매향교회로

농촌 어르신들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교회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시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가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이주민을 십수 년간 섬기면서 처음 이 사역을 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이주민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린열방선교교회에서 매향교회로>

열린교회의 지원으로 안산에서 열린열방선교교회를 개척한 지 올해로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의 필요 때문에 외국인이 더 밀집되어 있는 화성 지역으로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또 많은 선택의 가능성들을 따져 보았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몇 년간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매향교회와 합병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작년 12월 말에 저희 교회 상황을 잘 아시는 한 목사님께서 화성의 한 교회와 합병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화성의 매향리에 위치한 매향교회(열린열방선교교회에서 약 40km 거리)로 60년 된 교회인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어 목회자가 공석이었고 70대 이상 되시는 약 20명의 성도분들만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예배당도 꽤 넓은 데다가, 무엇보다 주변 지역에 많은 태국인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찾고 있던 예배당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그 제안에 응했고, 그 이후 노회의 선임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청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감사하게도 매향교회 측에서 저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해 주셨고, 함께 움직이는 외국인들을 모두 성도로 받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열린열방선교교회 거의 모든 성도분이 기쁨으로 매향교회로 함께 이전하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매향교회에서 예배 시작

이 모든 과정이 갑작스럽고 급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매향교회에 담임목사가 공석이였기에 부득이하게 청빙받은 바로 다음주인 2월 11일부터 매향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린열방선교교회와 매향교회를 오가며 예배를 인도했고, 몇 주 후 열린열방선교교회의 한국인 성도분들께서는 매향교회로 옮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성도들은 아직 매향교회에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터라 안산에서 예배를 당분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예배를 위한 리모델링

저희 가족은 급하게 3월 중순에 안산에서 화성의 매향리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한 이후부터 외국인들 예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매향교회 건물은 거의 40년간 방치되어 건물 곳곳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였고, 음향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열린열방선교교회에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7년간 모아둔 재정이 있어 그 재정을 매향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2달 반의 리모델링 이후에 외국인들은 5월 셋째 주부터 매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인 예배 분립

그렇게 매향교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부터 스리랑카인 사역을 함께 섬기게 된 이창호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리랑카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해 스리랑카 예배 팀을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서부터 스리랑카 팀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인, 태국인, 스리랑카인을 모두 섬기는 것에 한계를 경험하였고, 또 스리랑카인들 안에서 그들만의 필요들과 원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스리랑카인들은 매향교회로 가지 않고 기존의 건물에서 이창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따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하여 계속해서 스리랑카인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인·태국인 연합예배

매향교회의 기존 성도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70이 넘어서서 전통적인 신앙생활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곳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다문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저의 사역 여정에 있어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 7월 7일에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태국인들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예배 때 한국인들과 태국인들이 똑같은 찬양을 각 나라의 언어로 불렀고, 함께 학습·세례식, 유아세례식,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어르신들이 학습·세례를 받은 태국인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연합예배 때 매향교회의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 이후에 앞으로 연합예배를 자주 하자는 의견이 있어 8월에 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 곳곳을 태국인들이 아름답게 가꾸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단장되었고, 태국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교회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어르신들만 계신 전통 교회에 태국인들이 들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첫발을 잘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의성가음교회 태국인 사역자 파송>

작년에 의성의 한 교회(의성가음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농촌 어르신들만 계시는 교회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주변에 태국인들이 많이

* 정진학 목사님은 GMP 소속 정회원 선교사로서 태국에서 2003년 부터 약 4년간 평신도 선교사로 섬겼고, 2008년부터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온 지체들과 함께 열린교회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다가 2017년 3월에 안산에 열린열방선교교회를 설립하여 예배처소를 옮겼습니다. 올해 매향교회 담임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된 과정을 열린신문 독자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열린열방선교교회는 열린신문 8면에서 ‘국내디아스포라’로 소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편집부)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청하고자 연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의성가음교회사역자파송

여러 생각 끝에 열린열방선교교회 태국인 전도팀 8명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서 태국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왔지만 그곳에 태국어가 가능한 사역자가 없기에 태국인 사역에 진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

던 중 열린열방선교교회에서 태국으로 파송했던 첫 전도사를 3개월간 불러 의성 지역에 보내는게 좋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전도사가 한국에 들어와 8월 말부터 의성가음교회에서 태국인들을 3개월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농촌지역에 한국인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태국인 청년들이 한국인 어르신만 계시는 농촌교회에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은 앞으로 변화되는 한국의 상황 가운데 의미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다문화 사회 안에서 이주민 사역의 방향은?>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 지 17년 쯤 돼갑니다. 그런데 이주민 정책들은 갈수록 한국에서 정주하는 이주민들이 더 많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열린교회에서 이주민을 섬겼을 때는 이곳에서 잘 양육해서 그들의 나라로 잘 보내는 이주민 선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주민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 가면서 앞으로 이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들어와 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는 한국에 계속 머무는 이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열린교회(한국 교회 안에서 이주민 사역)에서 열린열방선교교회(이주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로, 또 열린열방선교교회에서 매향교회(한국인과 이주민들이 함께 세우는 교회)로 이전함으로써 생긴 사역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 다문화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주체들은 이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지역교회에서 이주민들을 만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주민들과 어떻게 잘 지내야 할 것인가?’ 기존의 ‘보내는 선교’에서 ‘이주민과 잘 지내는 선교’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매향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① 한국인·태국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매주 넘치도록
- ② 태국인 리더들의 주말 전도가 조암 지역을 중심으로 잘 이뤄지도록
- ③ 한국인·태국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져 교회 안에서 잘 협력하도록
- ④ 매향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선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정진학·손원향(찬영, 찬유, 찬울, 찬성) 올림 ☆



저는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별다른 굴곡 없는 순탄한 믿음생활을 해왔습니다. 대전에서 큰 교회에 다니며 교회 및 교회학교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성경고사, 수련회, 성경암송 등)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왔습니다.

저의 인생 중 큰 변화점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대전에서 계속 살다가, 아버지의 이직으로 분당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상황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제 인생의 암흑기라 부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조용한 (모)범생으로 지내는 중 친구들의 놀림받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괴롭고, 괴롭히는 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싶을 정도로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 수련회 등을 통해 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성가대와 중등부 임원을 맡으면서 교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조금씩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는 주님의 은혜로 이후에 고등학교에 가서 원수에서 '베스트 프렌드'로 변하게 되었고, 이후 결혼식 때는 그 친구에게 사회를 부탁하였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낙담했을 때, 중요한 결정의 시기 때 언제나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수능을 보고 대입에 실패하였을 때 전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고, 군대에서 견디기 어려운 간부의 괴롭힘이 있을 때 주님께서 선배 병사들의 도움을 마련해주셔서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때 숫기 없는 모습으로 기회를 놓칠 뻔했으나, 처남의 도움을 통해 아내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열린교회로 교회를 옮길 때도 주님이 이끄시는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집에서 거리가 먼 교회를 다니며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어, 아이가 학령기가 되면 집 근처의 교회로 다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가정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및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 또한 성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든든한 교회를 구하며 기도하던 중 열린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 근처 의왕시에 있는 대안학교에 아이의 원서를 넣고 면접을 진행하였고 꼭 합격하여 열린교회 근처로 이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첫째가 학교에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면서 학교 주변으로 거주지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되었고,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교회에서 시작하고자 올해 초부터 가족이 함께 열린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 와서 첫 느낌은 신앙교육에 진심과 열정이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신자 여부에 관계없이 새신자반 교육과 성장반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바른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주간의 성장반 교육을 처음 시작한 늦겨울에는 언제 여름이 되나 싶었는데 어느덧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열린교회에 성가대가 없는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성장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교육에 더 주력하고자 하는 교회의 방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장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돌봐주신 집사님,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장반 수료 후 구역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와 동료들과 말씀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요교리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성진 담임목사님의 전도서 강해를 들으면서 전도서를 세밀하게 묵상할 수 있었고, 그동안 지나쳐 왔던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바라봄 기도회는 거리상 직접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빠지지 않고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매일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 아내와 함께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저뿐 아니라 가정의 믿음이 굳건히 다져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바라봄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는 아이들과 자기 전에 매일성경 QT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 가족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설교에서도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에 대한 설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유아부와 유년부에 속한 두 아이도, 회심집회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심집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도회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안내해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배 이후 집에서 아이들이 배운 찬양을 부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임을 고백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회와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아이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섬김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원고를 작성하는 날 수지에서 의왕시로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 교회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짐에 따라 더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구역모임을 통해 주님 안에 성장할 저희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8살 예준이와 4살 예솔이의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정혜윤의 남편으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곰곰이 생각

열매는 증거이지, 근거가 아니다

글 · 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살리는 근거가 아닙니다.
열매가 나무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나무는 살아 있나요?



살아 있으니
열매를 맺겠지.

행위(삶)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위(삶)는 구원을 얻는 근거가 아닙니다.
행위가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누가복음 6장 43-44절

그래서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는
아름답게 만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9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2024 가을말씀사경회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일시 10월 15일(화) ~ 17일(목) 오후 7:30
장소 예배실(본관)



15일(화)
김성진 목사 (열린교회 담임목사)



16일(수)
조호형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약신학)



17일(목)
주종훈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유튜브 생방송



교회학교(영아부~소년부, 사랑부) 사경회가
같은 시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 휴직장로 김남근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 부목사 김동기 박철웅 이상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 전도사 광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김다영 이 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호 권세원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태국: 김요한 & 이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정오 12시 (세빛빌딩 5층 중국어예배실) 中午 12点 (世光大厦 5楼 中文礼拜部)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